

지역 매아리

완주군의의회, 신뢰도 추락?

겨울철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김제시, 통계조사 우수기관 선정

김제시가 통계청에서 주관한 2018 통계조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2018년 실시한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제시는 신뢰받는 통계조사와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해 자체 실시계획을 수립해 조사요령 교육과 현장지도 점검, 조사표 입력 및 내부 검사 등을 착오 없이 수행했고, 플래카드와 언론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해 왔다.

김제시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역내 사업체들의 조사 참여 분위기 조성과 응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김중배 정보통신과장은 올해 통계조사에 성실히 임해준 사업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해준 조사요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통계조사는 각종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조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도로정비 우수기관 선정

총 998.8km 도로 안전과 주행성 확보

올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라북도 도로정비 심사에서 김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8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총 998.8km 도로(위임국도 8.3km, 지방도 187.8km, 군도 및 기타도로 702.7km)에 대하여 덧씌우기 및 노면정비, 배수시설정비, 안전시설물 등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주행성을 확보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앙비(굴삭기, 청소차, 크레인)를 운영하여 관내 주요도로 포장도로 및 측구 토사제거, 위험목 제거 등 도로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지평선축제 및 국제종자박람회 등 우리시 주요 도로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김제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

선강식 건설과장은 "이번 도로정비 우수기관 선정은 그동안 김제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시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출범 초부터 의장·초선의원들간 갈등 확산... 군민피해 우려

완주군의의회 의장, 재선의원, 초선의원들간 내용이 도를 넘어서면서 군의회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초선의원들의 결집으로 제8대 완주군의의회(이하 군의회) 출범초부터 의장, 초선의원들간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 대립이 더욱 첨예화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재선의원들마저 '제 몫 챙기기'로 관망세를 취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다는 관측에 지역정기가 노심초사다. 애꿎은 주민피해로 이어질 우려에서다.

제8대 군의회는 재선 5명과 초선 6명, 총 11명(민주당 9명, 평화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월 '임기 4년간 오롯이 군민만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선서식을 가지고 첫 출발을 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출범 5개월여만에 의장, 일부재선의원, 초선의원들간 북마전으로 방향타를 잃어버리고, 거센 폭풍속에 갇힌 형세가 됐다.

이는 ▲의장, 재선의원들의 리더십 부재 ▲개원초기 의정활동 갈등 ▲하반기 의장 자리 다툼 의혹 ▲초·재선 의원간 지역구 중복에 따른 견제 등 사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의 단초가 됐다.

급기야 군의회 최동원 의장은 최근 "초선의원들이 말을 듣지 않아 의정활동, 완주군의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너무 힘들다"며 공개석상에서 초선의원들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하고 나섰다.

덧붙여 그는 "의정활동에 대해 재선의원들에게 배울 점도 있는데 초선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막 나가는 것



제8대 군의회는 재선 5명과 초선 6명, 총 11명(민주당 9명, 평화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지난 7월 선서식을 가지고 첫 출발을 했다. 사진은 완주군의의회 전경.

같다.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초선의원들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밝혀 의원들간 갈등의 골이 본격화된 게 드러났다. 지난 17일 2명의 재선의원이 군브리핑룸을 찾아 "이제는 초선의원들간의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고 밝혀 의원들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했다.

이처럼 의원들간 '자중지란'이 벌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의정활동, 군집행부 견제 소홀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 몫이 된다는 여론에 자성의 목소리까지 일고 있다.

군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당당히 멈추라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허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

원이 최근 최동원 의장과 이러한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논의했으나, 마땅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서다.

이외관련 완주군의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해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제4항,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고도 했다.

제5조 제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시 자문위원회에 회부돼, 그에 따른 징계수위를 정한다고 규정해 놓고 의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친환경농업 우수모범사례 금상

로컬푸드 직매장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개설 호평

완주군이 친환경농업 육성의 우수모범사례에 뽑혀 금상을 수상했다.

완주군은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고 전국 친환경농업협의회가 주관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에서는 지난해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1,2호점에 친환경 농산물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문매장을 개설한 것이 큰 호평을 받았다.

완주군은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가격과 양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 등의 가치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분

석하고,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을 개설 했다.

그 결과 친환경 전문매장 개설 후 2018년 9월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60여명의 친환경농가들이 120여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이 출하했다.

특히, 친환경 전문매장은 로컬푸드와 마찬가지로 당일생산 당일판매의 원칙을 고수하고, 중간유통과정을 생략한 직거래방식을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김중옥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완주군 친환경전문매장은 대한민국 최초 로컬푸드 기반 친환경 전문매장으로 생산자는 노력에 비해한 제값받기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들이 비싸지 않다는 인식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이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총괄지원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지원반으로 구성된 한파 대응 합동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파대응 합동 T/F팀은 재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3개반 6개 실·과·소로 구성되며, 완주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공하는 겨울철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소관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재설 취약지구에 적사함, 모래주머니, 열화용액 살포장치, 제설차량

등 재설 자재와 장비의 현장배치를 완료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제설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방문건강인력과 노인돌봄인력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집중관리, 농업인 행정지도 및 농업재해 보험 가입 홍보, 축산단체별 겨울철 피해예방 교육, 수도시설 분야 사전대비 및 급수 지원 대책 추진 등을 실시한다.

폭설로 인한 시설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FEB구조물, 아치판넬 등 적설 취약구조물에 대한 현황조사와 안전 지도점검도 진행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겨울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파·대설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보건소는 노년기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2018년 1월 중순부터 읍면동 지역 277개소 경로당을 순회했다.

'치아 건강 100세 까지'

김제시보건소, 노년기 구강건강관리 경로당 순회 호응

김제시보건소는 어르신 치아건강을 위해 노년기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2018년 1월 중순부터 읍면동 지역 277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며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생활태도 개선 및 올바른 칫솔질 및 틀니사용과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해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의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불소도포를 실시하여 노년들의 뿌리충치 및 시린이를 예방하고 잇몸질환 교육을 통해 자연 치아의 보유율을 높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구강보건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구강위생용품(칫솔, 틀니치솔, 틀니세정제, 틀니통)등을 배부하여 더욱 내실 있는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김형희 보건소장은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는 치아건강, 노년기가 되면 더 중요함을 깨닫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정확히 몰라 남아있는 치아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남은 치아는 더 건강하게, 틀니사용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드립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